

전기전자/IT HW

중국 스마트폰 10월 출하량 코멘트: 사상누각

전기전자/IT부품

Analyst 양승수

02. 6454-4875

seungsoo.yang@meritz.co.kr

- CAICT 중국 10월 핸드셋 출하량 약 2,967만대(+17.0% MoM, +1.8% YoY), 스마트폰 출하량 약 2,788만대(+17.6% MoM, -1.1% YoY) 발표

- Apple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Non-Local 핸드셋 출하량 622만대(+24.0% MoM, -44.2% YoY) 기록. 전체 출하량 내 점유율은 20.9%로 전년 동기(38.2%) 대비 크게 부진

- AI 기능 출시 지연과 현지 로컬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중국 시장 내 Apple의 10월 출하량은 최근 4년 중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 (그림3)

- 반대로 Local 브랜드 핸드셋 출하량은 2,345만대(+15.2% MoM, +30.2% YoY)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반등. 화웨이를 제외한 주요 로컬 세트 업체들이 작년과 달리 광군제 전 신모델 출시를 통해 출하 반등을 주도

- 10월에 출시된 신모델은 핸드셋 37개, 스마트폰 29개, 5G 핸드셋 22개로 스마트폰 위주로 전월 대비 증가(9월 각각 35, 18, 13개)

-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수요 회복이 동반되지 못한 공격적인 출하가 지속 중. 이는 세트업체들이 증가한 자체 재고(그림6)를 소진하기 위해 출하량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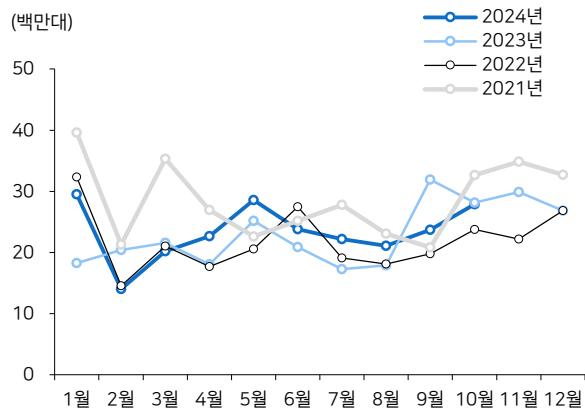
- 다만 부진한 수요가 지속되며 1) 유통채널 재고부담 심화(그림8,9), 보수적인 부품 주문(그림10,11) 기조 지속. 특히 지속적인 수요 부진은 세트업체들의 재고 소화기간 장기화 → 부품업체들의 가동률 회복 지연의 악순환을 초래

- 연말 핵심 변수는 중국 중앙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 규모 및 품목 증가 내 휴대폰 포함 여부. 9월부터 일부 중국 지방 정부(ex 선전, 장쑤)는 휴대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의 분명한 한계가 존재

- 중국 중앙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 내 휴대폰이 포함될 경우 극적인 수요 반등 가능성 존재. 실제로 중국 정부가 지난 9월부터 가전제품 구매 시 판매가의 15~20%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올해 중추절과 국경절 황금연휴 기간 TV 판매량은 작년보다 20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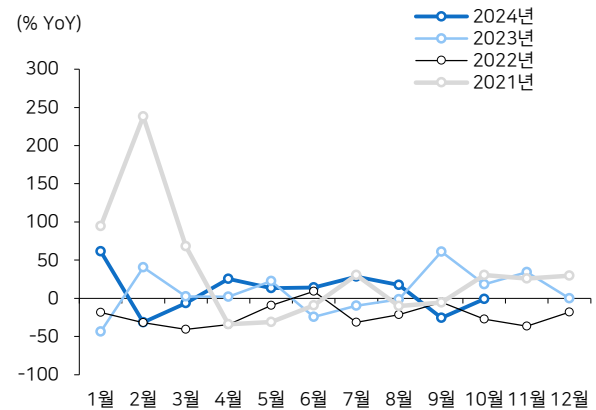
- 다만 관련 모멘텀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뚜렷한 수요 반등 시그널이 부재하기 때문에 중화권 내 보수적인 주문 기조 유지 전망

그림1 중국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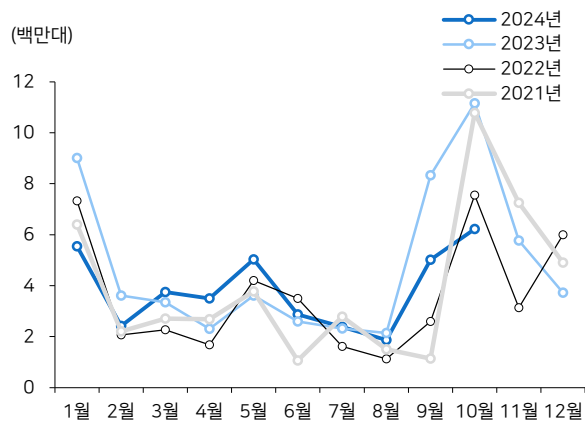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중국 스마트폰 YoY 성장률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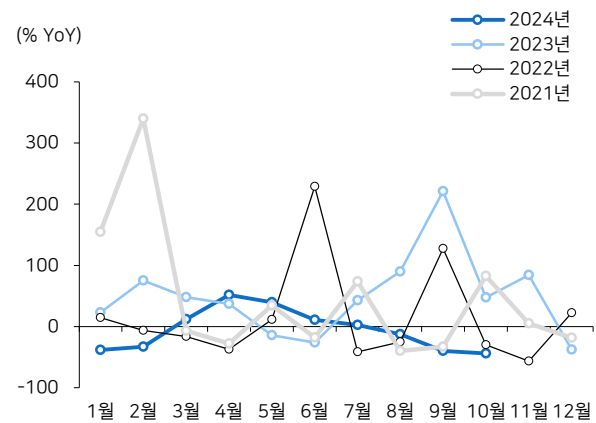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중국 Non-Local 브랜드 월별 출하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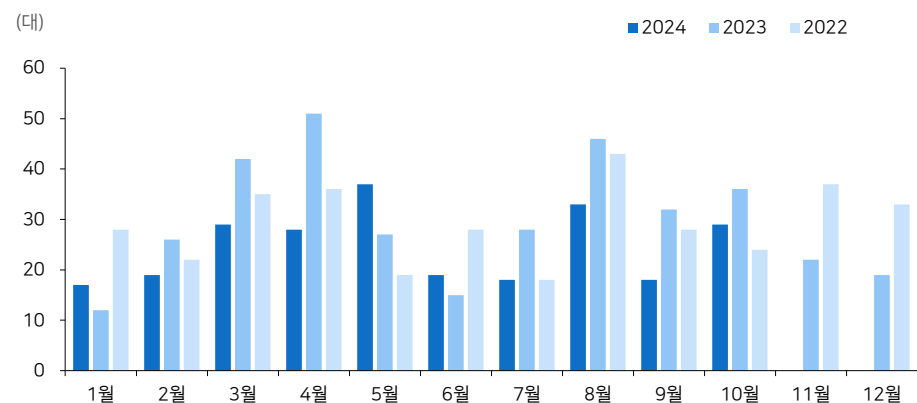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중국 Non-Local 브랜드 YoY 성장률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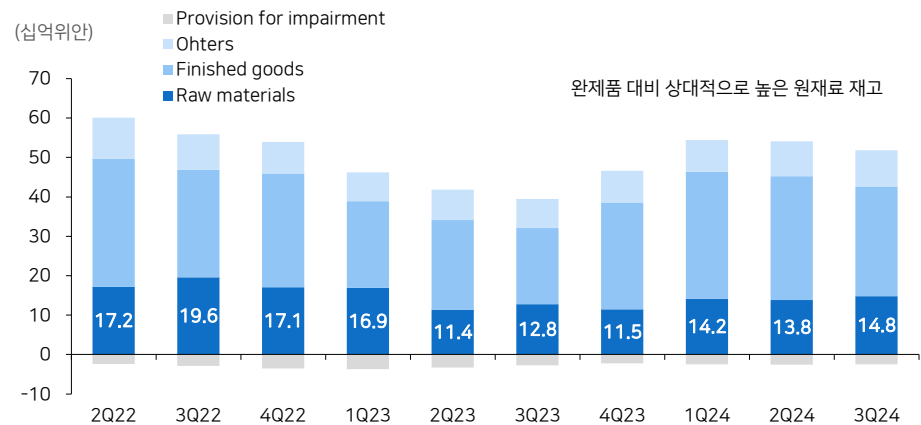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연도별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대수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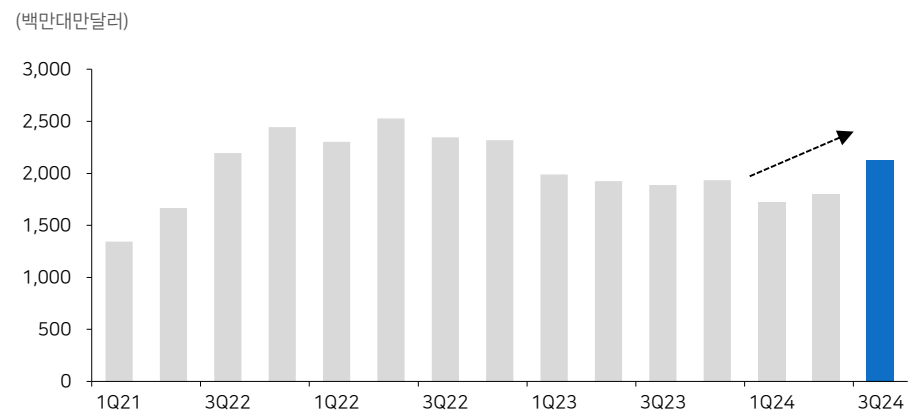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Xiaomi 재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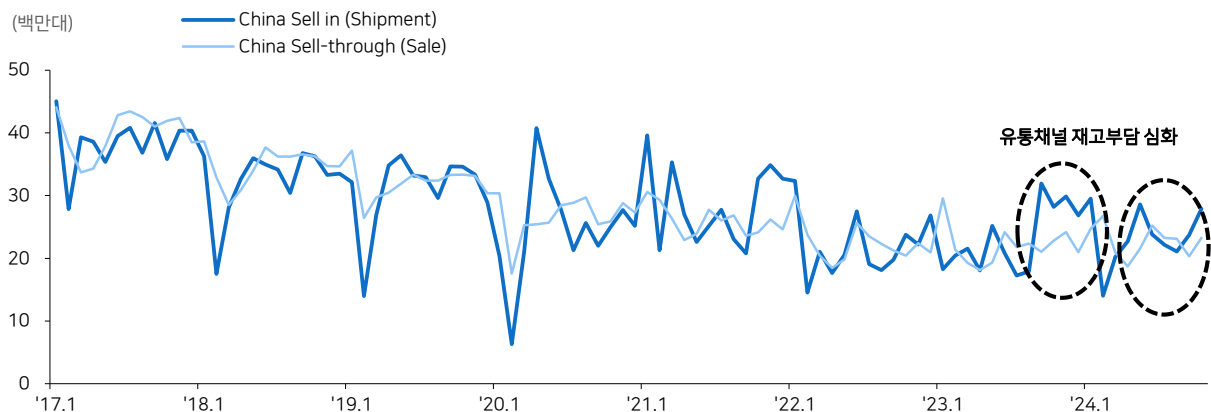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대만 수동부품 유통업체 Nichidenbo 재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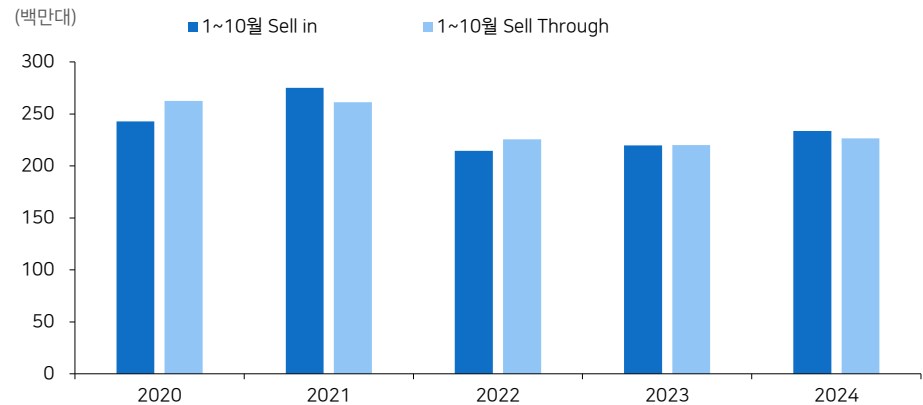
자료: Mops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/판매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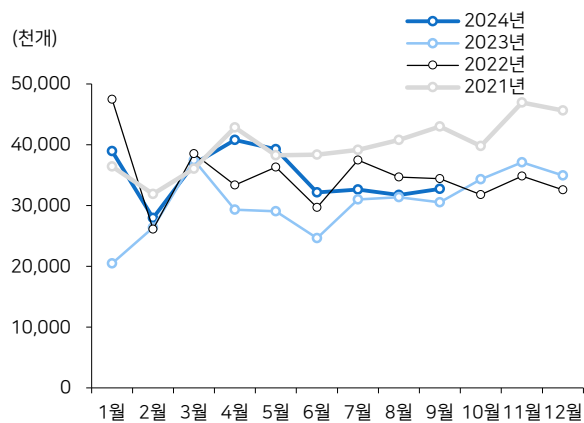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1~10월 연도별 Sell in vs Sell Through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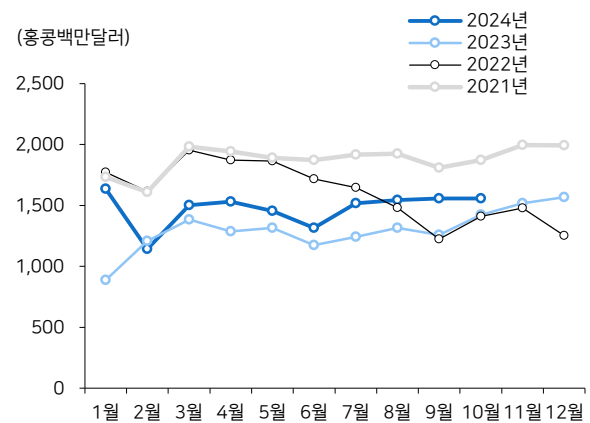
자료: CAICT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0 Q Tech 핸드셋용 카메라모듈 출하량 추이



자료: Q Tech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1 중국 스마트폰용 LCD 공급업체 Truly 월별 매출액



자료: Truly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